

## 대학생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김규량<sup>1,†</sup> · 명광주<sup>2</sup>

<sup>1</sup>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학과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학생

<sup>2</sup>한성대학교 뉴미디어광고커뮤니케이션트랙, 교수

(2020년 8월 26일 접수: 2020년 10월 30일 수정: 2020년 10월 30일 채택)

### Negative Health Behavior,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Differences in Tattooed and Nontattooed University Students'

Gyu-Rang Kim<sup>1,†</sup> · Kwang-Joo Myung<sup>2\*</sup>

<sup>1</sup>Student, Department of Media Design, Hansu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ew Media Ad. Communication, Hansung University

(Received August 26, 2020; Revised October 30, 2020; Accepted October 30, 2020)

**요약** : 본 연구는 대학생의 타투 소유자와 비소유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경기소재 4년제 대학생 214명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25.0 version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여 분석하였고,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타투 유무에 따른 두 집단간의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투의 부정적 속성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과 상반되는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타투를 문화현상으로서 타투를 반영하고 활성화 시켜 시대에 맞는 문신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타투, 문신문화,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negative health behavior,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between tattooed and non-tattooed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4 four-year college student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 crossover analysis, and t-test were conducted using the 25.0 version of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egative health behavior,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between the two group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tattoo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has a meaning as a positive aspect of research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adpromyung@naver.com)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at report negative properties of tattoo.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in establishing tattoo culture suitable for the times by reflecting and activating tattoos as a cultural phenomenon in the future.

*Keywords : Tattoo, Tattoo Culture, Negative Health Behavior, Mental Health, Self-Esteem*

## 1. 서론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신체의 소중함의 인식들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다소 다른 문화적 양식으로 변화 표현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사고와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로 변화하였다. 현대인은 새로운 표현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사고, 느낌, 감성, 개성을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치나 정체성을 부여 받으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1]. 그 대표적 문화적 표현 양식으로 타투(tattoo)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타투의 전통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건강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를 중심으로 타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2]. 이제 타투는 외모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행위 형태를 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사회 곳곳에서 타투를 시술한 사람들의 노출은 더 이상 낮은 것이 아니며 나아가 유명 연예인, 예술가 그리고 운동선수까지 대중매체를 통하여 타투의 모습을 여과 없이 노출시키고 있다.

타투는 색이 있는 염료를 피부 진피 속에 주입하여 글씨,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말로 문신(文身)이라고 하지만 타투와 문신을 동격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현대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이유(사춘기 통과 의례, 성인 의식, 장식 등)로 얼굴은 물론 전신에 문양을 새겨 넣는 행위(타투)가 풍습으로 남아있다[3]. 타투는 과거 부정적 인식 속에서도 일부 패션 요소로 타투를 활용하면서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탈피되고 있다[4].

뷰티 산업 영역에서도 타투를 메이크업과 같이 미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진피와 색소를 주입하여 문양을 만드는 반영구 타투, 해나 염료를 사용하여 몸에 문양을 만드는 해나 타투 등이 행하여지고 있다[5]. 또한 인체에 대한 타투 행위는

법적으로 의료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와 합법의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인간의 미에 대한 원 초적 그리고 최상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적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선행 연구들은 타투의 다양한 부정적 속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타투는 고통, 바이러스 성 감염 또는 HIV, 피부 조직 파열, 알레르기, 심내막염 또는 폐혈증(endocarditis or sepsis)과 같은 질병 위험성[6-9]과 같은 질병과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부 타투나 피어싱을 한 사람들은 알코올 남용, 항 우울제 사용, 흡연, 섭취장애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문제들과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10-13].

이와 유사하게 Raspa & Cusack[14]은 단 하나의 타투라도 타투는 시술자에게 내재해있는 정신적 문제를 경고하는 표시일 수 있다고 하였고, Grumet[15]에 의하면 타투는 충동성과 자기통제의 부족을 나타내며, 타투 시술자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반사회적 성향, 경계성 성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남용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타투 소유자는 더 많은 문제 행동과 범죄와 관련성이 높으며[16], 성격특성으로서의 낮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17]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타투는 더 이상 낮설지 않은 문화 현상이며 현대인의 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외모관리 행동의 수단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질병과 건강, 범죄, 사회심리적 병리적 정신 건강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의 문제들과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뷰티 영역에서의 타투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이 상반되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투의 긍정적 측면의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대부분 뷰티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타투의 연구들은 타투의 표현기법[18-19], 타투 작품 및 디자인[20-21], 타투 선호도[5], 타

투의 유용성[22] 등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타투의 긍정적인 연구들은 미래 타투의 방향성과 예술성 그리고 인간의 미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타투를 접근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뷰티 영역에서 타투를 문화적 현상으로 반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타투의 올바른 정립과 더불어 부정적 측면을 함께 조명하는 과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투관련 연구 대상으로는 일반인, 직장인, 타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대학생은 많지 않았다. 타투의 수요가 늘어나는 대학가의 주된 고객으로 부상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투 행동에 따른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타투 소유자와 비소유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여 시대적으로 올바른 타투의 문화를 정립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타투소유자와 미소유자의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일련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

###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경기 소재 4년제 대학생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방법 서울소재 4년제 남녀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과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병행 채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2.2. 측정도구

#### 2.2.1 부정적 건강행동

본 연구에서 부정적 건강행동은 김영호 외[23]의 연구에서 부정적 건강행동 척도 중 흡연유무, 음주, 약물복용,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의 유무로 총 6문항으로 명명척도형식으로 하였다.

#### 2.2.2.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미용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성녀[24]의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건강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 강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 2.2.3.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은 강평미[25]의 연구에서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값은 .937로 나타났다.

###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사회학적 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정확하고 타당하게 수렴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측정도구의 문구, 어절 등의 대한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내용타당도의 과정을 거쳐 일부 수정 보완된 질문지는 다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내용이 연구대상자에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문지의 작성은 연구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받아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조사하였으며 최초 질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2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220의 질문지 중 단일 번호로 일관되게 응답하거나 모든 질문 문항에 작성을 하지 않은 자료 6부를 제외하여 최종 214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타투소유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의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

차분식( $x^2$ )을 실시하였으며, 타투소유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 t-test를 실시하였다. 이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25.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질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Table 1은 정신건강 질문지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먼저 요인분석 방법은

각 요인들에 간에 독립성을 유지하며 요인의 구조를 탐색하고자 직교회전 방식의 varimax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Bartlett의 구성형 검증을 통하여 전체 상관관계 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분석하였으며 변수들의 편상관과 표본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지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요인의 구조화를 위하여 고유치(eigenvalue) 1.0 이상만을 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문항을 선택하기 위한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은 .5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정신건강 측정도구 19문항에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지수는 .849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X^2 = 1040.578$ ,  $p < .000$ 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

Table 1. Mental health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Ingredient			Commo nality	
	1	2	3		
Depression	7. Sometimes I get frustrated.	.873	.101	.025	.772
	6. Sometimes I feel sad even in the smallest matters.	.830	.216	.035	.737
	9. Sometimes I feel depressed for no reason.	.806	.323	-.002	.755
	5. Sometimes I feel unhappy.	.740	.401	.060	.712
	8. There are times when my heart hurts because of my mistakes.	.719	.058	.078	.527
Physical symptoms	1. Even after sleeping, there is no feeling of refreshment.	.166	.801	.096	.679
	2. I am very tired and exhausted, so I cannot digest well.	.235	.794	.078	.692
	3. It is difficult to sleep well because of anxiety and worries.	.435	.595	.177	.575
Compulsion	16. I want things to be organized in a certain order.	-.039	.021	.780	.610
	17. I habitually check doors, windows, and drawers.	.013	.308	.747	.653
	15. I get angry when things aren't organized properly.	.172	.169	.729	.590
	19. I tend to wash my hands frequently and for a long time.	.026	-.059	.552	.309
Eigenvalue	4.576	2.003	1.031		
Variance(%)	38.136	16.689	8.594		
Total Variance(%)	38.136	54.824	63.418		
Cronbach's $\alpha$	.884	.728	.677		
KMO=.849 $X^2 = 1040.578$ $p < .000$					

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유치(eigenvalue) 1.0이상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측정도구의 전체변량(total variance)은 63.418%의 설명력을 보였다. 대학생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질문지는 우울 5문항, 신체적 증상 3문항, 강박 4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 12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불안 요인은 요인적재치 .50 미만이거나 우울 요인에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한편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값(Cronbach's  $\alpha$ )은 우울 .884, 신체적 증상 .728, 강박 .677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834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Table 2는 대학생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16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그 결과 KMO지수는 .917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정치는  $X^2 = 1591.931$ ,  $p < .000$ 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고유치(eigenvalue) 1.0이상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1개 요인 10문항이 구조화 되었으며 전체변량(total variance)은 64.151%의 설명력을 보였다.

다.

따라서 대학생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질문지는 10문항 단일차원의 질문지로 최종 확인되었다.

한편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값(Cronbach's  $\alpha$ )은 자아존중감 .937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문항의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4년제 대학의 타투를 소유 유무에 따른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이에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방법으로 214명을 표집하였다. 먼저 자료 수집은 2020년 2월부터 3월 19일까지 총 50일간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2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문항 누락자들을 제외하고 총 214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3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163명(76.2%), 남성이 51명(23.8%)으로 나타나 여성 응답자가 높은 반응 비율을 나타내었다. 학년은 2학년 93명(43.5%), 4학년 51명(23.8%), 3학년 41명(19.2%), 1학년

Table 2. Self-esteem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Ingredient	
	1	Commonality
3. There are so many things I can do well.	.873	.762
1. I value myself highly.	.849	.720
7. I tend to say it when I have something to say.	.829	.687
4. I trust my abilities.	.825	.680
2. I appreciate myself.	.825	.680
8. I think I am a person with many advantages.	.822	.676
6. I think I have a positive attitude.	.795	.632
10. I think everyone has an advantage.	.793	.629
5. I feel happy that I am loved.	.693	.480
9. I live with a positive attitude.	.685	.470
Eigenvalue	6.415	
Variance(%)	64.151	
Total Variance(%)	64.151	
Cronbach's $\alpha$	.937	
KMO=.917 $X^2 = 1591.931$ $p < .000$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14)

Variable	Division	N	%
Gender	Male	51	23.8
	Female	163	76.2
	Total	214	100
Grade	1	29	13.6
	2	93	43.5
	3	41	19.2
	4	51	23.8
	Total	214	100
Major	Humanities	19	8.9
	Science/Engineering	41	19.2
	Art/Physical	149	69.6
	Etc	5	2.3
	Total	214	100
Tattoo	Tattoo	95	44.4
	Non-Tattoo	119	55.6
	Total	214	100

29명(13.6%)순으로 2학년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전공은 예·체능 분야 149명(69.6%), 이학/공학분야 41명(19.2%), 인문분야 19명(8.9%), 기타 5명(2.3%)순으로 예·체능 분야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타투 소유 유무를 살펴보면 타투를 하지 않았다 119명(55.6%), 타투를 했다 95명(44.4%)으로 타투를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 3.3.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 빈도분석

Table 4는 연구대상자의 부정적 건강행동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흡연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비흡연 140명(65.4%), 흡연 74명(34.6%)순으로 비흡연의 비율이 높았다. 음주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음주 153명(71.5%), 비음주 61명(28.5%)으로 과반수 이상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복용의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203명(94.9%), 복용 11명(5.1%)으로 거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동의 유무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 132명(61.7%),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82명(38.3%)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빈도수가 더 높았다. 규칙적인 식사의 유무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다 134명(62.6%),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80명(37.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에 대한 질문에는 예 147명(68.7%), 아니오 67명(31.3%)으로 과반수 이상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 3.4.1. 타투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 경향성 분석

Table 5는 타투소유자와 비소유자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에 대한 경향성 분석을 위한 교차분석( $\chi^2$ ) 분석 결과이다. 먼저 흡연상태를 살펴보면  $\chi^2 = 14.469$   $p < .001$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타투 소유자는 흡연 46명(48.4%), 비흡연 49명(51.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타투 비소유자에서 흡연자가 28명(23.5%)인 반면에 비흡연자가 91명(76.5%)로 비흡연자가 높은 빈도수(경향성)를 보였다. 다음으로 음주상태( $\chi^2 = 2.249$ ,  $p > .05$ ), 약물복용상태( $\chi^2 = .303$ ,  $p > .05$ ), 규칙적인 운동( $\chi^2 = .462$ ,  $p > .05$ ), 규칙적인 식사( $\chi^2 = 2.434$ ,  $p > .05$ ), 충분한 수면( $\chi^2 = .267$ ,  $p > .05$ )으로 타투소유자와 타투비소유자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타투나 피어싱을 한 사람들은 알코올 남용, 향

Table 4. Frequency analysis of negative health behavior

Variable	Division	N	%
Smoking	Yes	74	34.6
	No	140	65.4
	Total	214	100
Drinking	Yes	153	71.5
	No	61	28.5
	Total	214	100
Medication	Yes	11	5.1
	No	203	94.9
	Total	214	100
regular exercise	Yes	82	38.3
	No	132	61.7
	Total	214	100
Regular meals	Yes	80	37.4
	No	134	62.6
	Total	214	100
Enough sleep	Yes	147	68.7
	No	67	31.3
	Total	214	100

Table 5. Analysis of negative health behavior trends

Variable	Division	Tattoo	Non-Tattoo	Total	$\chi^2$	<i>p</i>
Smoking	Yes	46(48.4)	28(23.5)	74(34.6)	14.469	<.001
	No	49(51.6)	91(76.5)	140(65.4)		
	Total	95(44.4)	119(55.6)	214(100)		
Drinking	Yes	63(66.3)	90(75.6)	153(71.5)	2.249	.089
	No	32(33.7)	29(24.4)	61(28.5)		
	Total	95(44.4)	119(55.6)	214(100)		
Medication	Yes	4(4.2)	7(5.9)	11(5.1)	.303	.410
	No	91(95.8)	112(94.1)	203(94.9)		
	Total	95(44.4)	119(55.6)	214(100)		
regular exercise	Yes	34(35.8)	48(40.3)	82(38.3)	.462	.296
	No	61(64.2)	71(59.7)	132(61.7)		
	Total	95(44.4)	119(55.6)	214(100)		
Regular meals	Yes	41(43.2)	39(32.8)	80(37.4)	2.434	.078
	No	54(56.8)	80(67.2)	134(62.6)		
	Total	95(44.4)	119(55.6)	214(100)		
Enough sleep	Yes	67(70.5)	80(67.2)	147(68.7)	.267	.357
	No	28(13.1)	39(32.8)	67(31.3)		
	Total	95(44.4)	119(55.6)	214(100)		

\**p*<.05, \*\**p*<.01, \*\*\**p*<.001

우울제 사용, 흡연, 섭취장애 등과 같은 문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10-13]와 흡연을 제외한 그 외의 사회 심리적 문제와는 상반된 결과를 갖는다.

#### 3.4.2. 타투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평균 차이 분석

Table 6는 타투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평균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이다. 먼저 정신건강 하위요인 중 우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투소유자는 2.73, 비소유자 2.81로  $t = -.580, p > .05$  수준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체적 증상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투소유자 2.54, 비소유자 2.54로  $t = .029, p > .05$  수준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박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투소유자 2.39, 비소유자 2.44로  $t = -.505, p > .05$  수준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투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aspa & Cusack[14], Grumet[15], Matin[16] 등의 연구에서 타투는 시술자에게

내재해 있는 정신적 문제, 반사회적 성향, 경계성 성격장애 등의 문제 행동이 있다는 부정적 속성과 상반된 결과를 갖는다.

#### 3.4.3. 타투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균 차이 분석

Table 7는 타투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균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이다. 자아존중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투소유자 3.77, 비소유자 3.68로  $t = .969, p > .05$  수준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투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또한 성격특성으로서의 낮은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17]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최근 뷰티 영역에서

Table 6. Analysis of the mean difference in mental health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tattoos

Variable	Division	N	M	SD	t	sig
Depression	Tattoo	95	2.73	.1.00	-.580	.563
	Non-Tattoo	119	2.81	.86		
Physical symptoms	Tattoo	95	2.54	.82	.029	.977
	Non-Tattoo	119	2.54	.79		
Compulsion	Tattoo	95	2.39	.64	-.505	.614
	Non-Tattoo	119	2.44	.72		

\*\* $p < .01$ , \*\*\* $p < .001$

Table 7. Analysis of the average difference in self-esteem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tattoos

Variable	Division	N	M	SD	t	sig
Self-Esteem	Tattoo	95	3.77	.08	.969	.333
	Non-Tattoo	119	3.68	.06		

\*\* $p < .01$ , \*\*\* $p < .001$



의 타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이 상반되게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타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다른 뷰티 산업 영역으로 이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의료면허가 있어야 하는 한국 타투시장에서 타투 기술을 하는 의사가 극소수에 불과함에도 연간 문신 기술 건수가 300만 건을 넘고 있다[26].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신(新)직업 추진현황 및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집중하여 양성하겠다고 밝힌 직업에 타투이스트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며, 타투는 시각적으로 자신을 꾸미고 개성을 표출하는 도구이자 예술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타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27]. 따라서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조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타투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타투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하여 타투자가 부정적 건강행동이나 정신건강, 자아존중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두 집단 중 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평균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타투 비소유자에 의하여 타투 소유자가 부정적 건강행동이 높고 정신건강이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아직도 타투가 시대적, 사회적,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이러한 시각을 일부 탈피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Grumet[15]는 타투 소유자는 충동성과 자기통제의 부족,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반사회적 성향, 경계성 성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남용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였고, Drews, Allison & Probst[17]는 타투 소유자가 타투 비소유자에 비해 더 많은 문제 행동과 범죄와 관련성이 높고, 낮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같이 과거 타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 타투 소유자와 타투 비소유자 간의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따라

서 타투의 부정적 속성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로 타투 소유자가 비소유자보다 부정적 측면을 가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앞으로 타투를 문화현상으로서 타투를 반영하고 활성화 시켜 시대에 맞는 문신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서울·경기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또한 타투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타투 소유자의 행동에 문제가 없으며 타투의 긍정적 측면으로 판단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긍정적인 측면의 타투문화의 일반화를 위해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타투에 대한 이미지 효과, 흉터커버 등 다양한 유용성과 긍정적인 인식의 확대를 위해 타투 종류에 대한 심리적, 감정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1. E. J. Kang, "A Study on Changes in Cultural Meaning of Tattoos in Korean Society", *Korea Design Forum*, Vol.19, pp.403-412, (2008).
2. Y. S. Kim & H. S. Kang, "A study on the formation of symbolic meaning for tattoos of athletes", *Journal of Korean Sports Society*, Vol.13, No.1, pp.41-52, (2015).
3. J. A. Fisher, "Tattooing the Body, Marking Culture", *Body & Society*, Vol.8, No.4, pp.91-107, (2002).
4. K. H. Chung & M. S. Lee, "Analysis of tattoo patterns on tattoo-related internet club si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7, No.3, pp.1-13, (2007).
5. R. S. Seo, "A Study on the Tattoo Pattern Preference and Emotional Image according to the Body Satisfaction of 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 Aesthetics and Cosmetics Society*, Vol.12, No.2, pp.225-234, (2014).
6. B. Antoszewski, A. Sitek, M. Jedrzejczak, A. Kasielska, & J. Kruk-Jeromin, "Are body piercing and tattooing safe fashions?.", *European Journal of Dermatology*, Vol.16, No.5, pp.572-575, (2006).
  7. A. Stirn, "Body piercing: medical consequences and psychological motivations", *The Lancet*, Vol.9364, pp.1205-1215, (2003).
  8. W. Handrick, P. Nenoff, H. Muller & W. Knofler, "Infections Due to Body Piercing and Tattoos - a Review (in German)", *Wiener Medizinische Wochenschrift*, Vol.153, No.9-10, pp.194-197, (2003).
  9. F. Lopez-Medrano, J. R. Costa, J. L. Rodriguez-Peralto & J. M. Aguado, "An HIV-Positive Man with Tattoo Induration",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Vol.45, No.2, pp.220-221, (2007).
  10. M. L. Perez-Cotapos & M. L. Cossio, "Tattooing and piercing in teenagers", *Revista Medica de Chile*, Vol.134, No.10, pp.1322-1329, (2006).
  11. T. A. Roberts & S. A. Ryan, "Tattoos and body piercings: marks and markers?", *Journal of Midwifery & Women's Health*, Vol.48, No.3, pp.235, (2003).
  12. K. Skegg, S. Nada-Raja, C. Paul & D. C. Skegg, "Body Piercing, Personality, and Sexual Behavior", *Archives of Sexual Behaviour*, Vol.36, No.1, pp.47-54, (2007).
  13. M. Deschesnes, P. Fines & S. Demers, "Are tattooing and body piercing indicators of risk-taking behaviou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29, No.3, pp.379-393, (2006).
  14. R. F. Raspa & J. Cusack, "Psychiatric implications of tattoos", *American Family Physician*, Vol.41, pp.1481-1486, (1990).
  15. G. W. Grumet, "Psychodynamic implications of tattoo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3, pp.482-492, (1983).
  16. A. Martin, "On teenagers and tattoo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Vol.23, pp.31-32, (1997).
  17. D. R. Drews, C. K. Allison & J. R. Probst, "Behavioral and self-concept differences in tattooed and nantattooed college student", *Psychological Reports*, Vol.86, pp.475-481, (2000).
  18. M. K. Hwang, K. Y. Lee & Y. S. Jeon, "A Study on Tattoo Make up Technique Representation -Focusing on Collections Since 20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17, No.6, pp.1106-1111, (2011).
  19. R. S. Seo, "Body Tattoo Simulator Prototype that Reflects Tattoo Preferences for each Body part",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and Cosmetics Society*, Vol.13, No.3, pp.411-415, (2015).
  20. M. S. Oh, J. S. Lee & Y. S. Jeon, "Analysis of Hair Tattoos for Men based on the Formative Features of Korean Traditional Fen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eauty Art*, Vol.20, No.3, pp.7-21, (2019).
  21. M. H. Jung & G. H. Kwon, "Study on Fashion Hair Tattoo Work Production that Applied Tribal Tattoo Pattern",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 Vol.9, No.3, pp.67-74, (2015).
  22. K. O. Baek & D. H. Park, "Cognition of Modern People for Tattoo and Utilities of Tattoo According to the Social and Cultural Proper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3, No.1, pp.73-90, (2017).
  23. Y. H. Kim, Y. S. Kim, G. B. Kim, S. G. Kang & J. Y. Park, "A Causla Relation between the Negative Health behavior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Adolescent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11, No.2, pp.133-150, (2000).
  24. S. N. Sin, K. O. Kim & E. J. Yang, "A Study on the Effects of Stress of the

- Cosmetic Practitioners on Anger Express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2, No.6, pp.1255-1264, (2016).
25. P. M. Kang, “*Effects of Sociability, Body Image, Self-Esteem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Doctoral thesis, Chungnam University, (2017).
26. G. Gomaya, “Occupation and qualification- Do tattooists need a doctor's licens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ublic Interest Human Rights Law Center*, Vol.23, pp.215-243, (2019).
27. H. Jeo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 of Tattoo to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Oriental Medicine University, (2017).